



음악회로... 발레로... 창극으로...  
**예향의 진수 보인다**

'백조의 호수'



'공간-생명력'

**자연의 색, 그 아름다움**

강남구 새 17번째 개인전... 8일부터 광주 신세계갤러리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양화가 강남구씨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강씨는 17회째를 맞는 개인전에서 '풍경-그 길을 걷는다' 주제로 삶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사물과 자연을 새롭게 해석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10여년 동안 꽃 그림을 고집해온 그는 꽃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배경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 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

고 있다.  
또 강씨는 '공간-생명력' 연작 등의 작품을 통해 풍경에서 도드라지는 생명력을 포착하고 자연의 의미를 천연의 색으로 재색했다.  
강씨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뒤 동경국립미술대학 트리엔날레, '아 대한민국전', 국제교감예술제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363-16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립예술단체들 하반기 다양한 작품 준비... 서울·부산·일본 등 외지 공연도 풍성**

상반기 5·18 30주년 기념 공연을 무대에 올렸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하반기에는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일본을 비롯,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공연들도 많이 잡혀 있어 예향 광주의 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용단 100회 공연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하반기 1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12월 열리는 100회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을 버전임해 무대에 올린다. 특히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던 의상과 세트 등을 대폭 보강,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7일~18일에는 고전발레의 백미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백조의 호수'는 발레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 무용단은 6년만에 새롭게 공연한다.

8월 27일 열리는 소극장 모던발레 페스티벌에서는 조재욱·오윤환·김선돈·조성미·최운정씨 등 중견 단원 5명이 무대를 꾸미며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도 참가한다.

**12월 31일 제야 음악회 '백조의 호수' 6년만에 무대에**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하반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11월 6일로 예정된 '오페라 콘서트탄테'다. 구자범지휘자가 하노버국립오페라극장 지휘자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을 제대로 살리는 프로그램이다. 시향은 현재 공연에 참여할 정상급 오페라 가수를 섭외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려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히트상품 '새해 맞이 노는 음악회'가 '제야음악회'라는 타이틀로 다시 열린다.

그밖에 11월 26일과 12월 10일에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만난다.

광주시립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은 11월 25일 '빛 빛 빛 빛이 되라 하시네'라는 타이틀로 하선영·윤진철씨 등 광주 출신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무대를 준비 중이다.

또 9월16일에는 대학생 협연무대가 준비돼 열리며 10월 28일에는 '산'에 대한 곡을 모아 들려주는 기획연주회가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은 한가위 공연과 송년음악회, 상반기에 무대에 올렸던 창극 '안중근'을 준비중이며 광주시립합창단(단장 구천)은 '합창단 지휘자를 위한 음악회'(11월 12~13일)를 개최한다.

그밖에 광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어진)은 10월 28일 '가을 가곡과 문학'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가지며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는 '2010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크로스 오버 무대를 선보인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기획공연으로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9월 11일~12일)을 공연한다.

▲해외·타지 공연도 풍성  
하반기에는 타 지역으로 공연을 나서는 단체들이 많다.  
시향은 오는 10월2일~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2010'에 참여한다. 일본 문부성과 (사)일본오케스트라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음악제에서 광

주시향은 4일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과 5일 오사카심포니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연주 곡목은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과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하라',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이다.

국극단 창극 '안중근'으로 서울 공연을 진행한다.

안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창극 '안중근'은 오는 10월 22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지며 이어 26일에는 서울 마포아트센터 무대에도 오른다.

합창단은 서울을 비롯, 외지 공연이 많다. 8월 12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고양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하며 10월에는 한국합창대제전(서울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합창합연주회(대구) 무대에 선다. 12월 30일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도 준비돼 있다.

무용단은 7월 30일 대전시립무용단 초청으로 대전을 방문, '발푸르기의 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그룹 '불휘기픈' 열한번째 이야기**

25일까지 상록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분광관 장경화)은 오는 25일까지 지역미술단체 초대전인 '불휘기픈-열한 번째 이야기'전을 개최한다.

지난 2000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가져온 미술그룹 '불휘기픈'(회장 송연식)은 순수회화를 지향하는 미술단체로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아 300호 이상의 대작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상록전시관에서 지역의 미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초대 전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총 4개 단체가 초청되었으며, 이번 전시는 그 두 번째 초대전시이다.



송연식 작 '파도'

이번 전시에는 정승주 고문(전 전남대 교수) 등 회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여 작가는 이정석·문정호·최대주·박승현·오광삼·조성숙·박세경·최요안씨 등이다. 문의 062-222-35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점토에 담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

도조작가 전미석씨 개인전

31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

현대조각의 조형감각에 도예의 전통적인 기법을 접목해온 도조(陶彫) 작가 전미석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에서 열린다.

도조는 도자예술과 조각의 접목으로 생겨난 새로운 예술형태로 옛날의 도자가 주로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했다면, 조각에 가까운 도조는 점토의 유연성으로 형태의 다양한 창의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이번 전시에서 질박한 분청의 질감과 감수성 묻어나는 색감을 최대한 살려, 인간과 자연의 교감, 인간의 감정을 솔직 담



'정성'

백하게 그려낸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전씨는 이번 전시에서 1m에 가까운 대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씨는 개인전 5회, 2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일본 교토대학교와 중국 연변대학에서 연수했다. 전남과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832-13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한화그룹과 함께 하는 2010 찾아가는 음악회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유명 지휘자인 금난새씨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Great Challenge with Tchaikofski'라는 주제로 열린다.

연주레퍼토리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하이든의 '헬로협주곡' 등이며 협연자로는 첼리스트 조민석씨와 테너 하석배씨가 참여한다.

특히 금난새 지휘자가 유쾌한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에 좀

한화그룹 찾아가는 음악회

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와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한화그룹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여수 등 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광주 공연은 한화 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행사로 특히 이번 공연에는 광주 지역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 120명을 초청, 문화나눔을 실천한다. 문의 062-220-0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p><b>상무점</b>      <b>하남점</b></p> <p>1관 나이트&amp;데이 (154K) / 필립 모리스 (184K)</p> <p>2관 맨발의 꿈 (28K) / 필립 모리스 (184K)</p> <p>3관 방자전 (184K)</p> <p>4관 나이트&amp;데이 (154K)</p> <p>5관 포화속으로 (124K) / 파괴된 사나이 (184K)</p> <p>6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28K)</p> <p>7관 슈렉 포에버 (28K) / 여대생 기숙사 (154K)</p> <p>8관 스피라이스 (184K)</p> <p>9관 포화속으로 (124K)</p> <p>10관 파괴된 사나이 (184K)</p>	<p><b>클름버스시네마</b></p> <p>1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28K)</p> <p>2관 슈렉 포에버 (28K) / 여대생 기숙사 (154K)</p> <p>3관 파괴된 사나이 (184K)</p> <p>4관 스피라이스 (184K)</p> <p>5관 방자전 (184K) / 맨발의 꿈 (28K)</p> <p>6관 필립 모리스 (184K)</p> <p>7관 맨발의 꿈 (28K) / A-특공대 (154K)</p> <p>8관 포화속으로 (124K)</p> <p>9관 포화속으로 (124K) / 나이트&amp;데이 (154K)</p> <p>10관 나이트&amp;데이 (154K)</p>	<p><b>MEGABOX</b></p> <p>1관 슈렉 포에버 (28K)      <b>최고급관</b></p> <p>2관 나이트&amp;데이 (154K)</p> <p>3관 방자전 (184K)</p> <p>4관 스피라이스 (184K)</p> <p>5관 필립 모리스 (184K)</p> <p>6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28K)</p> <p>7관 A-특공대 (154K) / 맨발의 꿈 (28K)</p> <p>8관 파괴된 사나이 (184K)</p> <p>9관 포화속으로 (124K)</p> <p>10관 파괴된 사나이 (184K)</p>	<p><b>CINUS</b></p> <p>1관 파괴된 사나이 (184K)</p> <p>2관 포화속으로 (124K)</p> <p>3관 나이트&amp;데이 (154K)</p> <p>4관 맨발의 꿈 (28K) / 방자전 (184K)</p> <p>5관 A-특공대 (154K) / 나이트&amp;데이 (154K)</p> <p>6관 슈렉 포에버 (28K)</p> <p>7관 슈렉 포에버 3D(자막)(더빙)(28K)</p>
---	---	---	---

상무점: 영화시상! 열화시상!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1588 - 7941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권면역국사거리      1544 - 0600

영역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복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색깔있는 영화시상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